

독서역할모델 및 독서유효성이 중학생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연구

A Study on the Effect of Reading Role Model, Reading Effectiveness on Academic Achievement of Middle School Student

정 대 근 (Dae-Keun Jeong)*

목 차

- | | |
|------------------|--------------------|
| 1. 서론 | 3.2 분석대상 및 분석방법 |
|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4. 연구결과 |
| 1.2 선행연구 | 4.1 독서실태 및 독서인식 |
| 2. 이론적 배경 | 4.2 기초자료 분석 |
| 2.1 독서유효성 | 4.3 학업성취 영향요인 분석 |
| 2.2 독서역할모델 | 4.4 분석 결과 요약 및 시사점 |
| 3. 연구설계 | 5. 결론 |
| 3.1 연구가설 | |

초 록

이 연구의 목적은 독서역할모델(부모, 교사, 친구)과 독서유효성(독서지속의지, 독서몰입, 독서만족)이 중학생의 학업성취(국어성적, 내신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국어성적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독서역할모델 중 아버지(1.9%)와 어머니(3.4%)였으며, 독서유효성 요인 중에는 독서지속의지(8%)만 유일하게 영향을 미쳤다. 내신성적의 경우 독서역할모델 요인 중 어머니(3.4%)만 유일하게 영향을 미쳤으며, 독서유효성은 독서지속의지(10.4%), 독서몰입(4.0%), 독서만족(1.9%) 모든 요인에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독서지속의지를 제외하고는 그 영향력이 미미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influence of reading role model (parents, teachers, and friends) and reading effectiveness (reading satisfaction, willingness to persistent reading, immersed reading) reflected on middle school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Korean Language performance and middle school recor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factors affecting the performance of Korean Language were father (1.9%) and mother (3.4%) among reading role models. Among reading effectiveness factors, willingness to persistent reading (8%) was the only effective factor. In the case of the middle school record, the mother (3.4%) had the only effect among the reading role models, and reading effectiveness was influenced all factors such willingness to persistent reading (10.4%), immersed reading (4.0%) and reading satisfaction (1.9%). However, except for the factor willingness to persistent reading, the it found the influence was insignificant.

키워드: 학업성취, 국어성적, 내신성적, 독서역할모델, 독서유효성, 독서지속의지, 독서몰입, 독서만족
Academic Achievement, Korean Language Performance, Middle School Record, Reading Role Model, Reading Effectiveness, Reading Continuance Willingness, Reading Flow, Reading Satisfaction

*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jdk1319@jnu.ac.kr)
논문접수일자: 2017년 10월 16일 최초심사일자: 2017년 10월 23일 게재확정일자: 2017년 11월 3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1(4): 139-160, 2017. [http://dx.doi.org/10.4275/KSLIS.2017.51.4.139]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기는 미성숙한 아동기에서 성숙한 성인기로 옮겨가는 성장의 시기로 신체적 성숙과 함께 자아정체감, 인격형성, 개성발달 등과 같이 매우 중요한 인간 발달과업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며, 특히 생물학적 발달, 인지적 발달, 사회·정서적 발달이 서로 상호작용하며 영향을 미치는 시기이다(정옥분 2008). 청소년기에 대한 구분은 문화나 연구 분야 혹은 관점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어 명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사춘기의 시작인 초등학교 고학년에서부터 시작하여 자아정체감이 완성되는 20세 전후를 청소년기로 정의한다. 이처럼 과도기적 단계에 있는 청소년 독자는 독서에 있어서도 아동독자와 성인독자와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는데 아동독자보다는 학습, 성적, 진학에 대한 압박감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외부의 다양한 압력적 요소는 청소년의 독서생활에도 다양한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게 된다(류보라 2012).

독서는 인간이 삶을 영위하고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친다. 특히 청소년의 독서생활은 청소년이 당면한 개인적이고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지적인 대응능력과 문제 해결능력을 키워 줄 수 있으며,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을 독서를 통해 통찰하고 이해하게 함으로써, 현실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키울 수 있다(정옥분 1998, 188). 또한 독서는 지적 호기심

이 강하고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에게 올바른 삶의 방향과 모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독서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15)에 따르면 초등학생 시기에 연간 70권이었던 독서량이 중학생이 되면서 연간 19.4권, 고등학생 연간 8.9권으로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이에 대한 이유로는 학교나 학원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혹은 책 읽기가 싫고 습관이 되지 않아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독서생활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의 청소년들의 독서실태는 긍정적이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기업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창의적 인재를 찾고 있으며,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가장 좋은 방편으로 독서를 주목하게 되었다. 독서에 대한 관심의 증가, 특히 학부모들의 독서에 대한 관심의 증가는 연구자들로 하여금 청소년의 독서생활을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을 찾으려 하였다. 독서에 관한 연구는 독서기술, 독서능력, 독서환경, 독서실태 등 양적 연구와 함께 독서태도, 독서동기, 독서흥미 등의 질적 연구 등 다양한 범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청소년기와 연계된 독서연구로는 청소년들의 독서생활과 학업성취와의 관계성을 살펴보는 연구도 다수 나타나게 되었다.

정대근(2014)은 2014년 전국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독서태도, 독서역할모델, 도서관긍정성 등이 독서유효성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질적 연구를 실시하여 독서태도 및 독서역할모델, 도서관긍정성이 독서유효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범주 중 위 연구에서 제외되었던 중학생을 대상

으로 독서실태와 함께 독서유효성을 조사하고, 더 나아가 독서역할모델 및 독서유효성이 중학생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까지 확인하고자 한다.

청소년의 독서생활 및 학업성취와 관련된 연구는 이미 다양한 측면에서 진행되었으나, 기존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독서와 학업성취 사이에 상반된 연구결과와 이견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상반된 연구 결과를 확인하고, 기존에는 다루어지지 않았던 독서유효성의 하위요소인 독서만족, 독서몰입, 독서지속의지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와 함께 부모, 교사, 친구 등 독서역할모델이 국어성적과 및 내신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2 선행연구

독서에 관한 연구는 초창기 국어교육적 입장에서의 독서교육에 관한 연구를 시작으로 독서기술 및 독서능력(Baker, Dreher and Guthrie 2000; 최숙기 2010 등)에 대한 연구와 함께 독서환경(McGee and Richgels 1995 등) 독서실태(김병주 1975; 변미경 2013 등)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1980년대 이후 독서에 있어 독서태도(McKenna 1994; 김대희, 엄해영 2012 등), 독서동기(이순영 2006), 독서흥미(Kush and Watkins 1996; 조증열, 이임숙 2004; 김재철 2005; 소연희 2008) 등 정성적 측면의 질적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1990년 이후에는 독서몰입(McKenna, Kear and Ellsworth 1995; 이병기 2010) 등 독서의 본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허재영 2006, 232-235). 초기의 연구

들이 단순히 하나의 요인만을 연구하였다면, 최근의 연구들은 영향요인, 인과적 관계, 매개효과 등 각 변인들 간의 영향관계를 위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2000년 이후 독서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의 증가와 함께 독서에 대한 연구는 자연스럽게 독서와 학업성취와의 관계에 대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며, 학생들의 독서가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나타나게 되었다. 김경근, 변수용(2007)의 연구에 따르면 학생들의 독서향유가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특히 국어, 영어, 수학의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백병부, 김경근(2007)은 이에 대한 확장으로 학생들의 독서활동이 내신성적 및 수능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문화자본(학생들의 독서향유)이 수능성적 및 내신성적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교과서나 학습지를 제외한 서적을 향유하는 습관은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는 독서량의 증가는 학생의 학업에 대한 열의와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자존감)를 높임으로써,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며, 이로 인해 학습능력이 개선된다고 보았다(조증열, 이임숙 2004; 소연희 2008 등). 이는 교과내용에 대한 이해의 기본은 독서능력이며, 이러한 능력을 습득해야만 학업성취가 높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박은아, 송미영 2008).

독서와 학업성취 사이의 관계는 다양한 교과목을 중심으로 연구되었으며(Dimaggio 1982; 조증열, 이임숙 2004; 박은아, 송미영 2008; 소연희 2008; 김양분, 김난옥 2015; 정이화 2016),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국어과와 사회과를 중심으로 독서와 학업성취 사이에 영향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반면, 수학과 및 과학과의 경우 학업성취에 독서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조증열, 이임숙(2004)은 독서가 국어과 학업성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으며, 박혜숙(2008) 역시 독서태도, 독서습관, 독서시간 등이 국어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미미하거나 없다고 하였다. 정이화(2016) 또한 독서와 사회과 학업성취 사이의 영향력을 조사한 결과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하나 그 영향력이 매우 미미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처럼 독서와 학업성취 사이의 연구결과는 서로 상반되거나 연구자들 사이에 이견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독서역할모델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학생들의 독서생활에 있어 독서역할모델(부모, 교사, 친구)은 매우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Manning and Manning 1984; Wheldall and Entwistle 1988; 김대희, 엄혜영 2012; 정대근 2014 등), 특히 이러한 독서역할모델을 통한 독서동기부여는 학업성취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곽수란 2004; 소연희 2008; Arroyo et al. 2012; 유백산, 김경근 2013; 정이화 2016).

2. 이론적 배경

2.1 독서유효성

이 연구에서는 독서와 학업성취 사이의 관계

를 설정함에 있어서 정대근(2014, 40)의 연구에서 정의한 독서유효성의 개념을 사용하였다. 독서유효성이란 “개인의 독서활동을 통해 얻는 내적 평가로 독서활동에 대한 정의적 개념을 개인의 주관적 표현을 통해 나타나는 효과”라고 할 수 있으며, 독서유효성의 구성요소는 독서몰입, 독서만족, 독서지속의지로 구분할 수 있다.

독서몰입은 “청소년 스스로가 독서활동에 자연스럽게 집중하는 정도”(정대근 2014, 98)를 측정하는 것으로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이병기(2010, 70-71)의 연구를 보면 성별, 지역, 학급에 상관없이 청소년들은 독서를 통하여 독서몰입을 경험하고 있다. 즉 독서 상황에서 청소년의 독서몰입은 독서활동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므로 독서의 효과측정의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독서만족은 자신의 독서활동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는 긍정적 태도와 감정의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과거의 독서활동을 토대로 미래의 자신의 독서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개인의 심리상태(정대근 2014, 50)라고 정의할 수 있다.

독서지속의지는 “어떤 상태가 오래 지속되거나 어떤 상태를 오랫동안 계속하는 것”을 의미하는 지속과, 심리학적 개념으로 “선택이나 행위의 결정에 대한 내적이고 개인적인 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 의지의 조합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을 통해 저절로 익혀진 행동 방식의 독서습관과 유사성을 보이거나 개인의 의지가 포함된다면 측면에서 차이점을 보인다. 이를 통해 독서지속의지는 “독서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독서상태를 오래도록 계속할 수 있는 내적

욕구”로 정의할 수 있다(정대근 2014, 53).

2.2 독서역할모델

청소년의 독서에 있어 독서환경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Downing, Ollila and Oliver(1997)에 의하면 부모의 학력 수준, 가정에서의 독서 여부와 장서량, 부모와 함께 독서하는 빈도와 학교에서의 읽기 능력 성취도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Gambrell(1996, 838)의 연구에 따르면 교실의 독서환경, 책을 통해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것 등도 독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부모의 직업적 특성도 청소년의 독서에 영향을 미치는가 하면(정대근 2014, 129), 부모의 학력수준은 학생들의 국어과 학업성취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교육과정 평가연구원 2008, 186). 또한 학생들이 독서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교사가 함께 책을 읽어준 학생들의 독서활동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증가하였으며(Wheldall and Entwistle 1988), 친구들과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하며 독서한 학생들의 독서성취가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더 높다(Manning and Manning 1984)는 연구 결과 등이 나타났다. 부모와 자녀간의 대화나 소통은 자녀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유백산, 김경근 2013),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독서활동 등 역할모델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행위 자체가 다른 어떤 행위보다 자녀의 학업성취에 높은 효과를 보인다고 하였다(De Graaf, De Graff and Kraaykamp 2000). 이를 통해 볼 때, 독서환경은 청소년의 독서 및 독서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독서환경 중

역할모델이 될 수 있는 부모, 교사, 친구 등의 독서에 대한 시각 및 역할은 그 중요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독서를 통해 습득된 다양한 지식을 포함한 사고력은 부모 등과의 대화 등을 통해 확장될 수 있으며, 새로운 이해의 틀을 마련하게 된다(오승호 2015).

3. 연구설계

3.1 연구가설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및 이론적 검토를 기반으로 청소년의 독서와 학업성취 사이의 연결고리인 부모와 교사, 친구의 독서역할모델이 청소년의 국어과 학습성취 및 내신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부모의 경우 아버지의 역할과 어머니의 역할의 차이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 가설 1. 독서역할모델(아버지, 어머니, 교사, 친구)은 학업성취(국어성적 및 내신성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개인이 독서활동을 통해 얻은 내적 평가인 청소년 스스로 독서활동에 자연스럽게 집중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독서몰입 및 자신의 독서활동에 대한 가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독서만족, 그리고 독서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독서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하는 지적욕구인 독서지속의지가 국어성적 및 내신성적 등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 가설 2. 독서유효성(독서몰입, 독서만족, 독서지속의지)은 학업성취(국어성적 및 내신성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 분석대상 및 분석방법

이 연구는 광주지역 K중학교 3학년 9개반 2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중 응답이 불성실한 27명의 설문을 제외하고 총 234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89명, 38%)에 비해 여학생(143명, 62%)이 좀 더 많이 응답하였다.

설문조사는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국어과 담당교사의 도움을 받아 실시하였으며, 2016년 1학기 국어성적 및 내신성적을 자기기입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의 설문문항은 독서역할모델(26), 독서유효성(17), 학업성취(2), 일반사항(12) 등 총 57문항으로 설문을 진행하

였다. 요인분석을 통해 독서유효성 요소 중 독서몰입 중 한 문항인 독서생활에 관한 1개 문항이 삭제되어 설문분석은 4개영역, 9개 세부사항, 56문항으로 진행되었다. 설문 질문은 정대근(2014)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사용하였던 설문문항을 동일하게 사용하였으며, 세부사항은 <표 1>과 같다.

통계처리는 IBM SPSS Statistics 23을 사용하였으며, 빈도분석, 기술통계, T-분석, ANOVA 분석, 사후분석, 상관관계분석,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 연구결과

4.1 독서실태 및 독서인식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독서실태 및 독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응답자의 독

<표 1> 설문문항

| 영역 | 설문문항 | | | 문항 |
|--------|--|---|--|----|
| 독서역할모델 | 부모 | 부 | 도서관방문, 서점방문, 양서추천, 독서칭찬, 독서강조, 독서모습, 함께 독서, 독서토론 | 8 |
| | | 모 | | 8 |
| | 교사 | | 독서강조, 독서칭찬, 양서추천, 도서관이용권유, 독서모습, 독서활동 | 6 |
| | 친구 | | 도서선택, 독서토론, 독서토론의지, 친한 친구 독서생각 | 4 |
| 독서유효성 | 독서 지속의지 | | 독서긍정성, 독서가치, 독서관장, 독서보람, 독서활동, 지속독서, 다독의지, 평생독서 | 7 |
| | 독서 몰입 | | 독서비중, 동일시, 의미부여, 노력, 희생 | 6 |
| | 독서 만족 | | 전반적만족, 현재의 독서만족, 독서적합, 생활(삭제) | 3 |
| 학업성취 | 국어성적, 내신성적 | | | 2 |
| 일반사항 | 성별, 독서량, 학업성취 도움, 독서장소, 독서목적, 도서선택, 책 정보, 구입경로, 독서방해, 독서형태 | | | 12 |
| 총 문항수 | | | | 56 |

서량에 대한 인식은 64%의 학생이 현재 자신의 독서가 부족하거나 매우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2015년 국민독서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15, 77)와 유사하였다. 독서가 자신의 학업성취에 도움을 주는지에 대한 인식조사 또한 2009년 국민독서실태조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는데, 보통이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88명(37.6%)으로 가장 많았으며, 도움이 되거나 매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115명(49.1%)으로 나타나 2명 중에 1명의 중학생들은 자신의 독서활동이 학업성취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표 2〉 학업성취 도움 인식

| 구분 | 국민독서실태조사 | 본 설문 |
|----------|------------|----------|
| 전혀 도움 안됨 | 104(5.2) | 4(1.7) |
| 별로 도움 안됨 | 190(9.5) | 27(11.5) |
| 보통 | 660(33) | 88(37.6) |
| 도움이 됨 | 746(37.3) | 84(35.9) |
| 매우 도움이 됨 | 288(14.4) | 31(13.2) |
| 전체 | 2,000(100) | 234(100) |

주로 독서를 하는 장소로는 전체의 56.4%에 해당하는 128명의 학생들이 집에서 독서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학교 혹은 학교도서관에서 42명(18.95%), 교실에서 31명(13.7%)으로 나타나 학교에서보다는 집에서 하는 독서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5 국민독서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15, 85)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표 3〉 독서장소

| 독서장소 | 빈도(%) |
|--------------|------------|
| 집 | 128(56.4) |
| 교실 | 31(13.7) |
| 학교 혹은 학교도서관 | 42(18.5) |
| 학교 밖 공공도서관 | 6(2.6) |
| 통학 시 차 안 | 0(0.0) |
| 모든 장소 가리지 않음 | 13(5.7) |
| 기타 | 7(3.1) |
| 전체 | 227(100.0) |

도서선호형태에 대한 질문에 중학생들의 경우 전자책형태(56명, 24.9%)보다는 종이책형태(169명, 75.1%)의 도서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종이책과 전자책에 대한 월평균 독서량을 살펴보면 종이책의 경우 1-3권을 읽는 경우 127명(54.3%)으로 가장 높았던 반면 전자책의 경우 129명(55.1%)이 한 권의 책도 읽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표 4〉 도서선호형태, 월평균 독서량

| 독서량 \ 선호형태 | 169(75.1) | 56(24.9) |
|------------|-----------|-----------|
| | 종이책 | 전자책 |
| 0권 | 44(18.8) | 129(55.1) |
| 1-3권 | 127(54.3) | 70(29.9) |
| 4-6권 | 42(17.9) | 20(8.5) |
| 7-9권 | 9(3.8) | 6(2.6) |
| 10권 이상 | 12(5.1) | 9(3.8) |
| 전체 | 234 | 234 |

전자책의 이용빈도 〈표 5〉 역시 1년에 1-2회 이용한다는 응답이 121명(55.8%)으로 가장 높았다. 조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중학생의 경우 여전히 전자책보다는 종이책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2009년 국민독서실태조사 자료임. 독서와 성적의 상관성에 대한 학업성취도별 인식(학생) 차이에 대한 항목은 2009년 조사까지만 실시하였음

중학생들의 독서목적 및 독서장애요인, 도서 선택 방법, 도서정보수집 경로, 도서구입경로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순위에 따른 중복응답을 하도록 하였으며, 순위별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표 5〉 전자책 이용빈도

| 구분 | 빈도(%) |
|----------|------------|
| 거의 매일 | 14(6.5) |
| 주 1-2회 | 27(12.4) |
| 월 1-2회 | 31(14.3) |
| 6개월 1-2회 | 24(11.1) |
| 년 1-2회 | 121(55.8) |
| 전체 | 217(100.0) |

중학생들의 독서목적은 〈표 6〉과 같다. 독서 목적은 1, 2순위를 기입하도록 하였으며, 응답결과 중학생들이 책을 읽는 이유 1순위는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서가 75명(33%)으로 가장 높았고, 가중치점수도 196점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교양과 상식을 쌓기 위해서(101점),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66점) 순으로 나타나, 중

학생들의 독서목적 역시 2015 국민독서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15, 87)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중학생의 독서 장애 요인에 관한 조사(〈표 7〉 참조)에서는 1순위만 살펴보았을 때는 책읽기가 싫고 습관이 들지 않아서(73명, 32.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2순위를 통한 가중치 부여 시 컴퓨터, 인터넷 이용으로 시간이 없어서가 가중치점수 18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책읽기가 싫고 습관이 들지 않아서(170점), 학교나 학원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165점) 순으로 나타났다.

4.2 기초자료 분석

4.2.1 기초통계 분석

이 연구의 독립변수인 독서역할모델과 독서 유효성에 대하여 기술통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독서역할모델 중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집

〈표 6〉 독서목적

| 독서목적 | 1순위 | 2순위 | 가중 | 순위 |
|----------------------|----------|----------|-----|----|
|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서 | 75(33.0) | 46(20.5) | 196 | 1 |
| 교양과 상식을 쌓기 위해서 | 31(13.7) | 39(17.4) | 101 | 2 |
|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 19(8.4) | 28(12.5) | 66 | 3 |
| 책 읽는 것이 즐겁고 습관이 되어서 | 25(11.0) | 14(6.3) | 64 | 4 |
|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기 위해서 | 18(7.9) | 22(9.8) | 58 | 5 |
| 진학이나 진로선택에 도움이 되므로 | 14(6.2) | 23(10.3) | 51 | 6 |
| 학교 공부나 숙제에 도움이 되므로 | 12(5.3) | 24(10.7) | 48 | 7 |
| 도서관수업 시간에 과제 해결을 위해서 | 8(3.5) | 18(8.0) | 34 | 8 |
| 책을 전혀 읽지 않는다. | 14(6.2) | 3(1.3) | 31 | 9 |
| 친구들과 이야기를 잘 하기 위해서 | 0(0) | 3(1.3) | 3 | 11 |
| 기타 | 11(4.8) | 3(1.3) | 25 | 10 |
| 전체 | 227 | 224 | - | - |

〈표 7〉 독서 장애 요인

| 독서 장애 요인 | 1순위 | 2순위 | 가중 | 순위 |
|-----------------------------|----------|----------|-----|----|
| 컴퓨터, 인터넷, 휴대전화 이용으로 시간이 없어서 | 63(27.8) | 60(27.0) | 186 | 1 |
| 책읽기가 싫고 습관이 들지 않아서 | 73(32.2) | 24(10.8) | 170 | 2 |
| 학교나 학원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 56(24.7) | 53(23.9) | 165 | 3 |
| TV를 보느라 시간이 없어서 | 9(4.0) | 18(8.1) | 36 | 4 |
| 읽을 만한 책이 없어서 | 6(2.6) | 20(9.0) | 32 | 5 |
| 독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 5(2.2) | 10(4.5) | 20 | 7 |
| 어떤 책을 읽을지 몰라서 | 2(0.9) | 12(5.4) | 16 | 8 |
| 책을 살 돈이 없어서 | 3(1.3) | 7(3.2) | 13 | 9 |
| 학교도서관 등 책을 빌릴 곳이 없어서 | 1(0.4) | 3(1.4) | 5 | 10 |
| 부모님이 책 읽는 것을 공부라고 생각하지 않으셔서 | 0(0.0) | 3(1.4) | 3 | 11 |
| 책을 읽을 만한 가정환경이 아니어서 | 0(0.0) | 1(0.5) | 1 | 12 |
| 기타 | 9(4.0) | 11(5.0) | 29 | 6 |
| 전체 | 227 | 222 | - | - |

단은 교사(3.331점)였으며, 다음으로 어머니(3.321점), 아버지(2.943점) 순으로 나타났다. 독서유효성은 독서지속의지가 3.38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독서만족(2.935점), 독서몰입(2.819점) 순으로 나타났다.

〈표 8〉 독서역할모델 및 독서유효성

| 구 분 | | 전체 | 평균 | 표준편차 |
|----------------|-----------|--------|-------|-------|
| 독서 역할 모델 | 아버지 | 228 | 2.934 | 0.985 |
| | 어머니 | 226 | 3.321 | 0.957 |
| | 교사 | 229 | 3.331 | 0.776 |
| | 친구 | 232 | 2.763 | 0.918 |
| | 독서 유효성 | 독서지속의지 | 233 | 3.387 |
| | 독서몰입 | 232 | 2.819 | 0.804 |
| | 독서만족 | 234 | 2.935 | 0.898 |

국어성적 및 내신성적의 경우 자기기입방식을 통해 조사하였으며, 국어성적은 점수(100점 만점)를 내신성적은 백분위점수(%)를 기입하였다. 학생이 기입한 점수를 기준으로 국어성적의 경우 중위수 75점을 기준으로 성적분포를

5단계로 구분하였으며, 내신성적의 경우 20%씩 5급간으로 구분하였다. 국어 및 내신성적의 성적분포는 〈표 9〉와 같다.

〈표 9〉 국어 및 내신성적 분포

| 국어성적 | | | 내신성적 | |
|--------|-----|--------------|--------|-----|
| 성적분포 | 빈도 | 평균 (중위) | 성적분포 | 빈도 |
| 59점 이하 | 47 | 73점 (75점) | 17% 이하 | 45 |
| 60~69점 | 27 | | 18~34% | 45 |
| 70~80점 | 51 | | 35~50% | 44 |
| 81~92점 | 47 | | 51~69% | 44 |
| 93점 이상 | 36 | | 70% 이상 | 44 |
| 전체 | 208 | | 전체 | 222 |

4.2.2 개인특성별 차이분석

성별에 따른 독서역할모델 및 독서유효성, 학업성취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성별에 따라 평균의 차이가 있는 변수는 독서역할모델의 경우 어머니와 친구로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어머니가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였으며, 독서유효성의 경우 독서몰입

과 독서만족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독서지속의지의 경우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취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타났는데 국어성적의 경우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신성적의 경우 평균점수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아 남학생과 여학생 사이에 내신성적의 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다.

〈표 10〉 성별에 따른 비교분석

| 구분 | | N | M | SD | P | |
|----------|--------|---|-----|-------|-------|--------|
| 독서 역할 모델 | 부 | 남 | 87 | 2.683 | 0.771 | .346 |
| | | 여 | 139 | 2.881 | 0.857 | |
| | 모 | 남 | 86 | 3.141 | 0.852 | .032* |
| | | 여 | 138 | 3.423 | 1.004 | |
| | 교사 | 남 | 88 | 3.292 | 0.740 | .552 |
| | | 여 | 139 | 3.355 | 0.804 | |
| | 친구 | 남 | 88 | 2.466 | 0.865 | .000** |
| | | 여 | 142 | 2.947 | 0.908 | |
| 독서 유효성 | 독서지속의지 | 남 | 89 | 3.202 | 0.900 | .016** |
| | | 여 | 142 | 3.490 | 0.856 | |
| | 독서몰입 | 남 | 87 | 2.810 | 0.856 | .968 |
| | | 여 | 143 | 2.815 | 0.769 | |
| | 독서만족 | 남 | 89 | 2.828 | 0.946 | .190 |
| | | 여 | 143 | 2.986 | 0.858 | |
| 학업성취 | 국어성적 | 남 | 74 | 2.622 | 1.382 | .005** |
| | | 여 | 132 | 3.189 | 1.382 | |
| | 내신성적▲ | 남 | 80 | 3.238 | 1.380 | .056 |
| | | 여 | 140 | 2.857 | 1.427 | |

* p<0.05, ** p<0.01
▲ 내신성적의 경우 백분위점수로 평균이 낮을수록 성적이 좋음

학업성취와 독서량 사이에 있어서는 국어성적 및 내신성적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학생 개인의 독서량에 따라 학업성취도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1〉 참조).

〈표 11〉 독서량과 학업성취 비교

| 구분 | 독서량 | | | | | |
|------|-------|------|----|-------|-------|------|
| | - | N | M | S | P | |
| 학업성취 | 국어성적 | 매우부족 | 44 | 2.796 | 1.456 | .337 |
| | | 부족 | 87 | 3.115 | 1.333 | |
| | | 보통 | 49 | 2.755 | 1.377 | |
| | | 충분 | 24 | 3.292 | 1.628 | |
| | | 매우충분 | 4 | 3.500 | 0.577 | |
| | 내신성적▲ | 매우부족 | 50 | 3.160 | 1.543 | .145 |
| | | 부족 | 93 | 2.871 | 1.361 | |
| | | 보통 | 52 | 3.269 | 1.330 | |
| | | 충분 | 24 | 2.583 | 1.501 | |
| | | 매우충분 | 3 | 2.000 | 1.000 | |

* p<0.05, ** p<0.01
▲ 내신성적의 경우 백분위 평균이 낮을수록 성적이 좋음

반면 독서가 학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을 보면, 학업성취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도움이 안되거나 보통이라고 응답한 학생보다 국어성적과 내신성적 모두에서 더 좋은 성적을 나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학업성취와 학업성적도움 비교

| 구분 | 학업성적도움 | | | | | | |
|------|--------|------|----|-------|-------|------------|--------|
| | - | N | M | S | 사후 | P | |
| 학업성취 | 국어성적 | 전혀안됨 | 4 | 4.250 | 0.957 | b<d c<d | .000** |
| | | 안됨 | 23 | 2.261 | 1.287 | | |
| | | 보통 | 77 | 2.623 | 1.267 | | |
| | | 도움 | 76 | 3.474 | 1.321 | | |
| | | 매우도움 | 28 | 3.107 | 1.571 | | |
| | 내신성적▲ | 전혀안됨 | 4 | 2.000 | 1.400 | b<d c<d | .002** |
| | | 안됨 | 26 | 3.500 | 1.155 | | |
| | | 보통 | 83 | 3.458 | 1.334 | | |
| | | 도움 | 81 | 2.457 | 1.272 | | |
| | | 매우도움 | 28 | 2.786 | 1.342 | | |

* p<0.05, ** p<0.01
a: 전혀안됨, b: 안됨, c: 보통, d: 도움, e: 매우도움
▲ 내신성적의 경우 백분위 평균이 낮을수록 성적이 좋음

독서역할모델과 독서량 사이의 관계(〈표 13 참조〉)를 살펴본 독서역할모델로써 아버지는 독서량이 매우 부족한 학생들이 다른 모든 그룹보다 아버지의 독서도움에 낮은 점수를 부여하였으며, 독서량이 많은 학생일수록 아버지가 독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응답하였다. 독서역할모델로서 어머니는 독서량이 매우 부족하다고 응답한 학생을 제외하면 아버지와 유사하게 독서량이 많을수록 어머니의 독서에 대한 도움이 컸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교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독서량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친구의 경우 독서량이 매우 부족하다고 응답한 학생의 경우 다른 그룹에 비해 친구에 의한 독서 영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서역할모델과 학업 성적 도움에 대한 인식 사이의 관계(〈표 14〉 참조)는 차이가 많지는 않았는데, 아버지의 독서도움의 경우 학업 성적에 대한 도움이 안된다고 응답한 학생과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학생 사이에 차이가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경우는 안된다고 하거나 보통이라고 응답한 학생과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학생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서가 학업성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학생일수록 부모가 독서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고 응답하였다. 교사의 경우 보통이라고 응답한 학생과 매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학생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친구의 경우 학업 성적 도움에 대한 인식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독서역할모델과 독서량 비교

| 구분 | 독서량 | | | | | | |
|--------|-----|------|-------|-------|-------|---------------------------|--------|
| | - | N | M | S | 사후 | P | |
| 독서역할모델 | 부 | 매우부족 | 50 | 2.425 | 0.916 | a<b,c,d,e b<d,e c<e | .000** |
| | | 부족 | 95 | 2.876 | 0.915 | | |
| | | 보통 | 55 | 3.127 | 0.893 | | |
| | | 충분 | 24 | 3.469 | 0.961 | | |
| | | 매우충분 | 4 | 4.781 | 0.213 | | |
| | 모 | 매우부족 | 50 | 2.933 | 0.948 | a<d,e b<d,e c<e | .000** |
| | | 부족 | 94 | 3.274 | 0.902 | | |
| | | 보통 | 54 | 3.401 | 0.863 | | |
| | | 충분 | 24 | 3.885 | 0.976 | | |
| | | 매우충분 | 4 | 4.813 | 0.298 | | |
| | 교사 | 매우부족 | 51 | 3.209 | 0.748 | - | .115 |
| | | 부족 | 95 | 3.444 | 0.740 | | |
| | | 보통 | 55 | 3.258 | 0.813 | | |
| | | 충분 | 24 | 3.201 | 0.818 | | |
| | | 매우충분 | 4 | 4.000 | 0.828 | | |
| | 친구 | 매우부족 | 51 | 2.216 | 0.835 | a<b,c,d | .000** |
| 부족 | | 98 | 2.832 | 0.830 | | | |
| 보통 | | 54 | 3.019 | 0.949 | | | |
| 충분 | | 25 | 2.950 | 0.750 | | | |
| 매우충분 | | 4 | 3.438 | 1.784 | | | |

* p<0.05, ** p<0.01
a: 매우부족, b: 부족, c: 보통, d: 충분, e: 매우충분

〈표 14〉 독서역할모델과 학업성적도움 비교

| 구분 | 학업 성적 도움 | | | | | | |
|--------|----------|------|-------|-------|-------|------------|--------|
| | - | N | M | S | 사후 | P | |
| 독서역할모델 | 아버지 | 전혀안됨 | 3 | 2.250 | 1.250 | b<d | .004** |
| | | 안됨 | 26 | 2.447 | 0.806 | | |
| | | 보통 | 85 | 2.807 | 0.971 | | |
| | | 도움 | 84 | 3.173 | 0.959 | | |
| | | 매우도움 | 30 | 3.113 | 1.025 | | |
| | 어머니 | 전혀안됨 | 3 | 2.083 | 1.371 | b<d c<d | .001** |
| | | 안됨 | 26 | 2.976 | 0.901 | | |
| | | 보통 | 85 | 3.153 | 0.949 | | |
| | | 도움 | 82 | 3.598 | 0.858 | | |
| | | 매우도움 | 30 | 3.463 | 1.012 | | |
| | 교사 | 전혀안됨 | 4 | 3.083 | 1.198 | c<e | .027* |
| | | 안됨 | 27 | 3.179 | 0.820 | | |
| | | 보통 | 85 | 3.188 | 0.742 | | |
| | | 도움 | 83 | 3.420 | 0.701 | | |
| | | 매우도움 | 30 | 3.661 | 0.878 | | |
| | 친구 | 전혀안됨 | 4 | 2.250 | 0.935 | - | .107 |
| 안됨 | | 27 | 2.398 | 1.001 | | | |
| 보통 | | 88 | 2.741 | 0.874 | | | |
| 도움 | | 82 | 2.893 | 0.856 | | | |
| 매우도움 | | 31 | 2.863 | 1.058 | | | |

* p<0.05, ** p<0.01
a: 전혀안됨, b: 안됨, c: 보통, d: 도움, e: 매우도움

독서유효성에 대한 평균비교 및 사후분석 결과는 <표 15>와 같다. 독서지속의지와 독서량 사이를 살펴보면 독서량이 매우충분하다고 응답한 학생의 경우 독서지속의지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독서량이 부족할수록 독서지속의지가 낮았다. 독서몰입의 경우도 독서지속의지와 마찬가지로 독서량이 많을수록 독서에 더 몰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독서만족 역시 독서량이 많을수록 자신의 독서에 만족하고 있었다. 즉, 독서량이 많을수록 독서유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독서유효성과 독서량 비교

| 구분 | | 독서량 | | | | | |
|--------|----------|------|-------|-------|--------------------------------|--------------------------------|--------|
| | | - | N | M | S | 사후 | P |
| 독서 유효성 | 독서 지속 의지 | 매우부족 | 51 | 2,955 | 1,079 | a<b,d,e b<e c<e d<e | .000** |
| | | 부족 | 98 | 3,510 | 0,754 | | |
| | | 보통 | 55 | 3,325 | 0,771 | | |
| | | 충분 | 25 | 3,663 | 0,713 | | |
| | 독서 몰입 | 매우부족 | 4 | 5,000 | 0,000 | a<b,c,d,e b<e c<e d<e | .000** |
| | | 부족 | 50 | 2,280 | 0,803 | | |
| | | 보통 | 99 | 2,914 | 0,697 | | |
| | | 충분 | 54 | 2,895 | 0,745 | | |
| | 독서 만족 | 매우부족 | 25 | 3,080 | 0,660 | a<b,c,d,e b<e c<e d<e | .000** |
| | | 부족 | 4 | 4,542 | 0,567 | | |
| | | 보통 | 51 | 2,242 | 0,882 | | |
| | | 충분 | 99 | 2,879 | 0,745 | | |
| | 매우부족 | 55 | 3,249 | 0,673 | a<b,c,d,e b<e c<e d<e | .000** | |
| | 부족 | 25 | 3,547 | 0,751 | | | |
| | 보통 | 4 | 5,000 | 0,000 | | | |
| | 충분 | | | | | | |

* p<0.05, ** p<0.01
a: 매우부족, b: 부족, c: 보통, d: 충분, e: 매우충분

독서지속의지와 학업 성적 도움 사이의 관계 (<표 16> 참조)를 살펴보면 부분적으로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독서가 학업 성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학생일수록 독서지속의지가 높았으며, 독서몰입 및 독서만족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 성적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학생일수록 독서량과 마찬가지로 독서유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 독서유효성과 학업성적도움 비교

| 구분 | | 학업 성적 도움 | | | | | |
|--------|----------|----------|-------|-------|-------|-------------------------|--------|
| | | - | N | M | S | 사후 | P |
| 독서 유효성 | 독서 지속 의지 | 전혀안됨 | 4 | 2,964 | 1,280 | a<e b<c,d,e c<d,e | .000** |
| | | 안됨 | 27 | 2,556 | 0,812 | | |
| | | 보통 | 88 | 3,088 | 0,719 | | |
| | | 도움 | 83 | 3,730 | 0,767 | | |
| | 독서 몰입 | 매우도움 | 31 | 4,097 | 0,664 | a<e b<d,e c<e | .000** |
| | | 전혀안됨 | 4 | 2,250 | 1,041 | | |
| | | 안됨 | 27 | 2,265 | 0,866 | | |
| | | 보통 | 86 | 2,663 | 0,668 | | |
| | 독서 만족 | 도움 | 84 | 2,956 | 0,737 | b<d,e c<e | .000** |
| | | 매우도움 | 31 | 3,435 | 0,786 | | |
| | | 전혀안됨 | 4 | 2,417 | 1,101 | | |
| | | 안됨 | 27 | 2,432 | 0,871 | | |
| | 보통 | 88 | 2,848 | 0,836 | b<d,e | .000** | |
| | 도움 | 84 | 3,095 | 0,854 | | | |
| | 매우도움 | 31 | 3,247 | 0,989 | | | |
| | | | | | | | |

* p<0.05, ** p<0.01
a: 전혀안됨, b: 안됨, c: 보통, d: 도움, e: 매우도움

4.3 학업성취 영향요인 분석

4.3.1 상관관계 분석

각각의 요인 간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17>과 같다. 국어성적과 내신성적 간에는 매우 높은 상관관계(-0.81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어성적이 좋은 학생은 내신성적도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서역할모델 중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도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독서지속의지, 독서몰입, 독서만족사이에서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 요인별 상관관계 분석

| 상관관계 | 학업성취 | | 독서 역할 모델 | | | | 독서유효성 | | |
|------|------|---------|----------|---------|--------|--------|---------|---------|--------|
| | 국어성적 | 내신성적 | 부 | 모 | 교사 | 친구 | 지속의지 | 몰입 | 만족 |
| 국어성적 | 1 | -.811** | .140* | .186** | .013 | .102 | .283** | .114 | .083 |
| 내신성적 | | 1 | -.121 | -.196** | -.067 | -.065 | -.323** | -.199** | -.139* |
| 부 | | | 1 | .748** | .308** | .459** | .433** | .455** | .416** |
| 모 | | | | 1 | .290** | .471** | .452** | .399** | .352** |
| 교사 | | | | | 1 | .427** | .368** | .287** | .181** |
| 친구 | | | | | | 1 | .495** | .472** | .412** |
| 지속 | | | | | | | 1 | .709** | .622** |
| 몰입 | | | | | | | | 1 | .602** |
| 만족 | | | | | | | | | 1 |

* p<0.05, ** p<0.01

▲ 내신성적의 경우 백분위 평균이 낮을수록 성적이 좋음

4.3.2 영향력 분석

독서역할모델 및 독서유효성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어성적과 내신성적에 대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 독서역할모델과 학업성취 영향 분석

독서역할모델이 국어성적에 미치는 영향력(〈표 18〉 참조)을 살펴본 결과 독서역할모델 중 교사와 친구는 거의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버지의 경우 1.9%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어머니의 설명력은 3.4%로 나타났다. 즉 설정한 독서역할모델 중 중학생의 국어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모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려나 그 영향력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서역할모델이 중학생의 내신성적에 미치는 영향력(〈표 19〉 참조)을 분석한 결과 어머니 요인을 제외한 아버지, 교사, 친구의 경우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으나 그 설명력은 3.9%로 독서역할모델로서 어머니의 역할이 중학생의 내신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독서유효성과 학업성취 영향 분석

독서유효성이 국어성적에 미치는 영향은 〈표 20〉과 같다. 독서몰입 및 독서만족의 경우 설명

〈표 18〉 독서역할모델의 국어성적 영향

| 구분 | | 비표준화 계수 | | 표준화 계수 | R 제곱 | t | p |
|----------------|----|---------|-------|--------|------|-------|--------|
| | | B | 표준오차 | 베타 | | | |
| 독서 역할 모델 | 부 | 2.944 | 1.476 | .140 | .019 | 1.994 | .048* |
| | 모 | 4.046 | 1.523 | .186 | .034 | 2.657 | .009** |
| | 교사 | 0.338 | 1.848 | .013 | .000 | 0.183 | .855 |
| | 친구 | 2.302 | 1.567 | .102 | .010 | 1.469 | .143 |

* p<0.05, ** p<0.01

〈표 19〉 독서역할모델의 내신성적 영향

| 구분 | | 비표준화 계수 | | 표준화 계수 | R 제곱 | t | p |
|----------------|----|---------|-------|--------|------|--------|-------|
| | | B | 표준오차 | 베타 | | | |
| 독서 역할 모델 | 부 | -3.219 | 1.801 | -.121 | .015 | -1.787 | .075 |
| | 모 | -5.341 | 1.832 | -.196 | .039 | -2.915 | .004* |
| | 교사 | -2.213 | 2.231 | -.067 | .005 | -.992 | .322 |
| | 친구 | -1.841 | 1.922 | -.065 | .004 | -.958 | .339 |

* p<0.05, ** p<0.01

〈표 20〉 독서유효성의 국어성적 영향

| 구분 | | 비표준화 계수 | | 표준화 계수 | R 제곱 | t | p |
|-----------|------------|---------|-------|--------|------|-------|--------|
| | | B | 표준오차 | 베타 | | | |
| 독서 유효성 | 독서 지속의지 | 6.709 | 1.585 | .283 | .080 | 4.232 | .000** |
| | 독서 몰입 | 2.832 | 1.726 | .114 | .013 | 1.640 | .102 |
| | 독서 만족 | 1.900 | 1.587 | .083 | .007 | 1.197 | .232 |

* p<0.05, ** p<0.01

〈표 21〉 독서유효성의 내신성적 영향

| 구분 | | 비표준화 계수 | | 표준화 계수 | R 제곱 | t | p |
|-----------|------------|---------|-------|--------|------|--------|--------|
| | | B | 표준오차 | 베타 | | | |
| 독서 유효성 | 독서 지속의지 | -9.366 | 1.855 | -.323 | .104 | -5.050 | .000** |
| | 독서 몰입 | -6.419 | 2.139 | -.199 | .040 | -3.001 | .003** |
| | 독서 만족 | -3.965 | 1.906 | -.139 | .019 | -2.080 | .039* |

* p<0.05, ** p<0.01

력은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독서지속의지의 경우 설명력이 8%로 큰 영향력은 아니지만 독서지속의지는 중학생의 국어성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서유효성이 중학생의 내신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21〉과 같다. 독서유효성의 3요소인 독서지속의지, 독서몰입, 독서

만족 모두 내신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서지속의지의 경우 설명력이 10.4%로 나타났으며, 독서몰입은 4.0%, 독서만족은 1.9%로 나타났다. 독서지속의지의 경우 유일하게 두 자릿수 설명력을 보였으며, 독서몰입 및 독서만족은 통계적으로는 유의하나 그 영향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4 분석 결과 요약 및 시사점

이 연구는 중학생의 학업성취에 독서가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중학생의 독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독서역할모델 및 독서유효성이 국어성적 및 내신성적에 미치는 영향력을 설문을 통해 조사·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의 독서실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격년으로 실시하는 국민독서실태 조사의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자신의 독서량에 대한 인식은 64%의 학생이 본인의 독서에 대해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으며, 독서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은 중학생 2명 중 1명은 독서가 자신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독서하는 장소는 집(56.4%)이 가장 많았으며, 전자책(24.6%)보다는 종이책(75.1%)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이책 기준으로 월 평균 1-3권 읽는 학생의 비율(54.3%)이 가장 높았으며, 10명 중 2명 정도는 한 달에 한 권의 책도 읽지 않았다. 중학생들이 독서를 하는 목적으로는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읽는 경우(가중치 196)가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다음으로 교양과 상식을 쌓기 위해서(가중치 101)라고 응답하였다. 독서장애요인으로는 1순위가 책읽기가 싫고 습관이 되지 않아서(32.2%)였으며, 다음으로 컴퓨터, 인터넷, 휴대전화 이용으로 시간이 없어서가 27.8%로 나타났다. 그러나 2순위까지 응답결과를 통해 가중치를 부여할 경우 컴퓨터, 인터넷, 휴대전화 이용으로 시간이 없어서가 가중치 186으로 1순위로 나타났으며, 책읽

기가 싫고 습관이 되지 않아서(170), 학교나 학원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165)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3가지 장애요인 사이의 차이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 응답자의 85%가 이 3가지 요인으로 독서에 방해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독서역할모델과, 독서유효성, 국어성적과 내신성적 사이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독서역할모델의 평균치는 교사가 3.33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어머니(3.321), 아버지(2.943), 친구(2.763) 순으로 나타났다. 독서유효성은 독서지속의지가 3.38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독서만족(2.935), 독서몰입(2.819)순으로 나타났다. 독서역할모델 및 독서유효성 모두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전반적으로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 친구, 독서지속의지, 국어성적에서 남학생과 여학생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독서량과 학업성취 사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학업 성취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인식과 학업성취 사이에 차이를 분석한 결과 국어성적과 내신성적 모두 독서가 학업성취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보통이라고 응답한 학생보다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학생의 국어성적 및 내신성적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서역할모델의 노력과 중학생의 독서량 사이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부모와 친구 사이에는 차이가 나타났으나 교사에게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서역할모델과 학업성적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 사이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부모의 경우 학업성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학생보다 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의 부모가 더 많은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경우 보통이라고 응답한 학생보다 매우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학생이 교사에게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의 경우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서유효성과 독서량 및 독서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독서지속의지, 독서몰입, 독서만족 모두 독서를 충분히 하고 있는 학생이 다른 그룹에 비해 독서유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취에 대한 인식 역시 학업성적이 독서에 영향을 매우 많이 미친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경우 다른 그룹의 학생들에 비해 독서유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독서역할모델 및 독서유효성과 학업성취 사이의 영향력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 독서역할모델 중 국어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어머니와 아버지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영향력은 어머니 3.9%, 아버지 1.9%로 미미하였다. 교사와 친구는 국어성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신성적과 독서역할모델 사이의 영향요인을 살펴보면 어머니만이 유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영향력도 3.9%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독서유효성과 학업성취 사이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국어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독서지속의지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영향력은 8%로 나타났다. 반면 내신성적의 경우 독서지속의지(10.4%), 독서몰입(4%), 독서만족(1.9%) 모두 내신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독서지속의지의 경우 10%가 넘는 영향력을 보이고 있었다.

연구결과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을 살펴보면, 첫째, 학생들의 경우 독서가 자신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국어성적 및 내신성적에 독서가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 않거나 그 영향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학생들이 인식과 현실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독서역할모델의 독서에 대한 노력은 부모의 경우 약간의 영향력은 있으나 중학생의 국어성적 및 내신성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교사들의 경우 중학생의 독서생활에 있어 학생들을 위해 부모나 친구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학생들은 인식하고 있으나, 교사의 독서에 대한 노력이 중학생들의 학업성취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독서유효성 중 독서지속의지의 경우 학생들의 학업성취 즉 국어성적 및 내신성적에 많은 비중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독서역할모델들은 중학생들이 독서에 대한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독서목적 실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독서상태를 오래토록 지속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앞서 연구된 연구결과를 보면 독서가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다수 있었으나, 이 연구는 독서와 학업성취 사이의 영향력에 있어 박혜숙(2008)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며, 독서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력이 나타나기는 했으나 독서지속의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요인은 영향력이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5. 결 론

500여 권이 넘는 저서를 저술한 다산 정약용은 18년 동안의 귀양살이를 하면서 몸과 마음이 지친 상황에서도 책을 썼으며, 편지를 통해 아들들에게 지속적으로 독서할 것을 강조한 아버지로 유명하다. 그의 저서 『여유당전서』에서는 “집에서는 오로지 책을 읽고, 예절을 읽혀라”고 아들들을 훈계하는 내용이 나오며, 아버지의 유배로 경제적 어려움과 실의에 빠진 아들들에게 보낸 그의 편지 《기이아》에서는 “망한 집안의 아들로서 잘 처신하는 방법은 오직 독서 한 가지밖에 없다. (중략) 너희들이 독서하는 것이 내 목숨을 살리는 일이 아니겠느냐” 라고 오직 독서만이 살 길이라고 질책하기도 했다. 또한 인도의 정치가 네루 역시 감옥에서 200여 통의 편지로 자녀에게 독서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미국의 루즈벨트의 경우도 어린 시절부터 책에 주목시키고 집안에 서재나 작은도서관을 만들어 자녀를 교육하라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동서양을 막론하고 자녀교육에서 있어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독서의 현실은 매우 열악하다.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가정과, 학교에서 학생들의 독서를 장려하고 있지만, 학생들은 정작 자신의 의지대로 책을 읽지 못하고, 학업성적에 혹은 입학사정관제 등의 대학입시를 위한 스펙쌓기, 대학논술 대비의 목적으로 독서를 접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들의 독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독서역할모델과 독서유효성이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조사하고 올바른 독서의 방향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보면 일반적으로 중학생들은 독서

생활이 자신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이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중학생들의 다양한 독서에 대한 영향요인들과 그들의 독서생활은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실질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독서역할모델의 독서에 대한 노력은 부모의 경우 약간의 영향력은 있으나 중학생의 국어성적 및 내신성적에 미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사의 경우 학생들의 독서생활을 위해 부모나 친구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학생들은 인식하고 있으나, 교사의 독서에 대한 노력이 실질적으로 중학생들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나 교사가 하고 있는 독서모델에 대한 역할을 통해 단순히 학생의 학업성취를 올리겠다는 식의 접근은 지양해야 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연구결과라 하겠다. 즉, 부모와 교사 모두 독서를 중학생들의 학업과 연결 짓는 교육행위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독서생활을 통해 얻는 내적 평가인 독서유효성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독서유효성의 3요소 중 독서 지속의지의 경우 학생들의 학업성취 즉 국어성적 및 내신성적에 10% 내외의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학생들이 독서에 대한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독서목적 실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독서상태를 오래도록 지속하려고 하는 마음자세가 학생들의 학업성취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를 볼 때 부모 및 교사 등의 역할은 단순히 학업성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위한 방법을 선택하기보다는 중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스스로 독서

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도움을 주어야 할 것임을 시사한다.

여러해 전 보았던 “당신은 부모입니까? 학부모입니까?”라는 광고카피를 떠올려 본다. 독서는 학부모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부모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며, 학생들이 오래토록 즐기며 지속적으로 독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고자 노력할 때 독서는 비로소 학생들의 삶에 뿌리내릴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들의 삶에 뿌리내린 독서는 4차 산업사회에서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로 자연스럽게 성장해 갈 수 있는 토대가 되어줄 것이다.

본 연구는 광주지역 중학교 한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독서실태조사의 경우 전국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 국민독서실태조사와 매우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본의 한계로 인해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어 향후 표본을 더욱 다양화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1]곽수란. 2004. 가족배경이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교육연구』, 16/17: 51-60.
- [2]교육과정평가연구원. 2008. 『2007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 국어』. 서울: 교육과정평가연구원.
- [3]김경근, 변수용. 2007. 한국사회에서의 학업성취에 대한 문화자본의 영향. 『교육사회학연구』, 17(1): 23-51.
- [4]김대희, 엄해영. 2012. 부모의 읽기 태도에 대한 학생의 인식과 학생의 읽기 태도와의 상관성 연구. 『한국초등교육』, 23(4): 39-51.
- [5]김병주. 1975. 『아동의 독서실태에 관한 분석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사서교육전공.
- [6]김양분, 김난옥. 2015.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 및 학교변인 탐색. 『교육학연구』, 53(3): 31-60.
- [7]김재철. 2005. 성별과 학습선호도 유형에 따른 독서흥미, 독서량, 인지전략, 학문적 자신감, 읽기소양의 구조적 관계. 『교육심리연구』, 19(1): 93-114.
- [8]류보라. 2012. 『청소년 독자의 문식성 실행과 정체성 구성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학과.
- [9]문화체육관광부. 2015. 『2015년 국민독서실태조사 보고서』.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 [10]박은아, 송미영. 2008.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국어과의 읽기 능력과 사회과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

- 분석. 『사회과교육』, 47(3): 241-266.
- [11] 박혜숙. 2008. 시간에 따른 중학생의 독서태도, 독서습관, 독서시간과 국어성취도와의 관계. 『교육과학연구』, 39(3): 27-49.
- [12] 백병부, 김경근. 2007. 학업성취와 경제자본, 사회자본, 문화자본의 구조적 관계. 『교육사회학연구』, 17(3): 101-129.
- [13] 변미경. 2013. 『초등학생들의 독서 실태와 독서 지도에 대한 초등학생들의 인식』. 석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평생교육전공.
- [14] 소연희. 2008. 독서흥미, 독서활동,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사회성이 국어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 『교육방법연구』, 20(2): 75-90.
- [15] 오승호. 2015. 사회과 대화교육의 한계와 대안에 관한 연구. 『법교육연구』, 10(2): 29-54.
- [16] 유백산, 김경근. 2013. 가정배경, 가정 내 의사소통 방식, 학업성취 간 구조적 관계. 『교육학연구』, 51(3): 1-33.
- [17] 이병기. 2010. 초·중등 학생의 독서 플로우 성향과 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1(4): 51-72.
- [18] 이순영. 2006. 독서 동기와 몰입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이론적 고찰. 『독서연구』, 16: 359-381.
- [19] 정대근. 2014. 『청소년 독서유효성 영향요인 연구』. 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20] 정옥년. 1998. 책 읽기와 사람됨: 독서(讀書)와 청소년(靑少年) 지도(指導). 『독서연구』, 3: 183-220.
- [21] 정옥분. 2008. 『청년발달의 이해』. 서울: 학지사.
- [22] 정이화. 2016. 부모와의 대화, 독서, 학습활동이 사회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교육』, 55(2): 19-35.
- [23] 조증열, 이임숙. 2004. 초등학생의 읽기 능력, 독서, 학업효능감 및 학업성적간의 인과적 관계. 『초등교육연구』, 17(1): 127-143.
- [24] 최숙기. 2010. 『중학생의 읽기 능력 발달 양상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 [25] 허재영. 2006. 독서 교육 연구사: 학교 독서 교육을 중심으로. 『독서연구』, 15: 207-240.
- [26] Arroyo, A. et al. 2012. "The Association between Parent and Adult Child Shyness, Social Skills, and Perceived Family Communication." *Journal of Family Communication*, 12(4): 249-264.
- [27] Baker, L., Dreher, M. J. and Guthrie, J. T. 2000. *Engaging Young Reader: Promoting Achievement and Motivation*.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28] De Graaf, N. D., De Graaf, P. M. and Kraaykamp, G. 2000. "Parental Cultural Capital and Educational Attainment in the Netherlands: A refinement of the Cultural Capital Perspective."

- Sociology of Education*, 73(2): 92-111.
- [29] Dimaggio, P. 1982. "Cultural Capital and School Success: The Impact of Status Culture Participation on the Grades of US High School Student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7(2): 189-201.
- [30] Downing, J., Ollila, L. and Oliver, P. 1977. "Concepts of Language in Children from Differing Socio-Economic Background."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70(5): 277-281.
- [31] Gambrell, L. B. 1996. "Creating Classroom Cultures that Foster Reading Motivation." *The Reading Teacher*, 50(1): 14-25.
- [32] Kush, J. C. and Watkins, M. W. 1996. "Long Term Stability of Children's Attitudes Toward Reading."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89: 315-320.
- [33] Manning, G. L. and Manning, M. 1984. "What Models of Recreational Reading Make a Difference?" *Reading World*, 23(4): 375-380.
- [34] McGee, L. M. and Richgels, D. J. 1990. *Literacy' Beginnings: Supporting Young Readers and Writers*. Massachusetts: Allynd Bacon.
- [35] McKenna, M. C. 1994. *Toward a Model of Reading Attitude Acquisition*. In *Fostering the Love of Reading: The Affective Domain in Reading Education*. Edited by Cramer, E. H. and Castle, M. New Jersey: International Reading Association. 18-40.
- [36] McKenna, M. C., Kear, D. J. and Ellsworth, R. 1995. "Children Attitude Toward Reading: A National Survey." *Reading Research Quarterly*, 30(4): 934-956.
- [37] Wheldall, K. and Entwistle, J. 1988. "Back in the USSR: The Effect of Teacher Modeling of Silent Reading on Pupils' Reading Behavior in the Primary School Classroom." *Educational Psychology*, 8(1-2): 51-66.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Gwag, Su Ran. 2004. "Family Effects on Academic Achievement of High School Student." *Education Research*, 16/17: 51-60.
- [2]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2008. *2007 A Study on National Achievement of Academic Achievement: Korean Language*. Seoul: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 [3] Kim, Kyung Keun and Byun, Soo Yong. 2007. "The Impact of Cultural Capital on Student Achievement in South Korea."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17(1): 23-51.

- [4] Kim, Dae Hee and Um, Hae Young. 2012. "A Study on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Students' Consciousness about Their Parents' Reading Attitude and Students' Own Reading Attitude." *The Journal of Korea Elementary Education*, 23(4): 39-51.
- [5] Kim, Byong Ju. 1975. *An Analytical Study on Reading Status of School Children*. M.A.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 [6] Kim, Yang Boon and Kim, Nan Ok. 2015. "Exploration of Student and School Factors Influencing on Academic Achievement."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53(3): 31-60.
- [7] Kim, Jae Chul. 2005.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Reading Interest, Reading Amount, Cognitive Strategy, Academic Confidence and Reading Literacy in Terms of Gender and Learning Styl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9(1): 93-114.
- [8] Ryu, Bora. 2012. *A Study on Adolescent Readers' Literacy Practices and the Construction of Identity*. Ph.D. diss., Korean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Korea University, Korea.
- [9]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5. *2015 National Reading Actual Survey*. Seoul: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10] Park, Eun Ah and Song, Mi Young. 2008. "An Analysis of the correlation between Social Studies Educational Achievement and reading capability by using NAEA data." *Social Studies Education*, 47(3): 241-266.
- [11] Park, Hye Sook. 2008. "A Longitudinal Study of the Correlates among Reading Attitudes, Reading Behaviors, Time Spent on Reading, and Korean Reading Achievements of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39(3): 27-49.
- [12] Baek, Byoung-bu and Kim, Kyung-keun. 2007.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Academic Achievement and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Capital." *Sociology of Education*, 17(3): 101-129.
- [13] Byeon, Mi Kyeong. 2013. *Actual Reading Condition and Perception on Reading Guide of Elementary Students*. M.A. thesis, Major in Lifelong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Kyungnam University, Korea.
- [14] So, Yeon Hee. 2008. "The Effects of Reading Interest, Reading Activity, Academic Self-Efficacy, and Sociality on Korean Academic Achievement."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Methodology Studies*, 20(2): 75-90.
- [15] Oh, Seung Ho. 2015. "A Study on Limits and Alternative of Social Studies Conversation Education." *Journal of Low-Related Education*, 10(2): 29-54.

- [16] Yu, Baeksan and Kim, Kyung-keun. 2013.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Family Background, Family Communication Style, and Academic Achievement."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51(3): 1-33.
- [17] Lee, Byeong-Ki. 2010. "An Analysis on the Affecting Factors, Reading Disposition of Reading Flow of Elementary and Second Student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1(4): 51-72.
- [18] Lee, Soon-young. 2006. "A Theoretical Review on the Factors Affecting Motivation and Engagement in Reading." *Journal of Reading Research*, 16: 359-381.
- [19] Jeong, Dae Keun. 2014.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Adolescent' Reading Effectiveness*. Ph.D. diss.,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Graduate School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orea.
- [20] Jeong, Oc Nyoun. 1998. "Reading and Manning: Reading and Youth Guidance." *Journal of Reading Research*, 3: 183-220.
- [21] Jeong, Oc Bun. 2008. *Adolescence: An Introduction*. Seoul: Haggisa.
- [22] Jung, Yi-hwa. 2016. "The Impact of Communication with Parents, Reading, Learning Activities on Social Studies Academic." *Achievement Social Studies Education*, 55(2): 19-35.
- [23] Jo, Jeung Yeol and Lee, Im Sug. 2004. "Causal Relations among Reading Ability, Reading Activity, Academic Self-efficacy and Academic Achievement of Primary School Children." *The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17(1): 127-143.
- [24] Choi, Sook Ki. 2010. *A Study on the Aspects of Middle School Students' Reading Ability Development*. Ph.D. diss., Korea University of Education, Korea.
- [25] Heo, Jae-young. 2006. "A History of Research on Reading Education: Focused on School Reading Education." *Journal of Reading Research*, 15: 207-240.